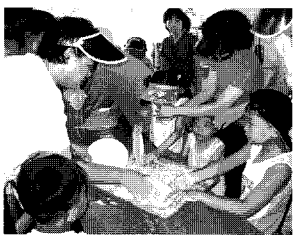
인정넘치는 향토마을 신론리를 찾아서

이 아 름
본회 기획홍보부 주임

떡메체험


콩고물 묻히기

떡메치기

지난 7월 24일 토요일, 본회의 초록텃밭 주말농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신론리에서 농촌체험행사가 있었다. 오전 9시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상일동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한 주말농장회원 35명(11가족)과 본회 직원들은 한 시간 정도를 달려 신론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 둘러보기

마을 둘러보기

마을 둘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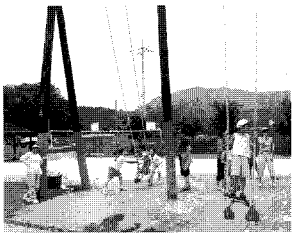
섭다리 건너기

짐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한 체험은 이른 아침을 먹고 온 일행이 요기를 할 수 있게 인절미를 만들어 먹는 체험이었다. 아빠들이 떡판에 있는 밥을 큰 떡메로 누르고 쳐준 다음, 엄마들이 떡이 찰지게 되도록 작은 떡메로 번갈아가며 쳐주었고, 어린이들도 한번씩 떡메를 들어 떡을 쳐보았다. 찰지게 된 떡을 콩고물이 준비된 쟁반에 넣고 콩고물을 묻히고, 접시로 떡을 썰어 너도나도 한입씩 먹었다. 지금껏 먹어보았던 떡과는 다르게 밥알갱이가 씹히기도 하고, 달콤한 맛은 없었지만,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체험하고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이들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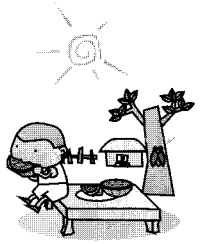
인절미로 요기를 간단히 하고 마을생태체험을 떠났다. 마을의 하천인 흑천을 따라 마을 주변의 작은 풀들(쑥, 질경이, 씀바귀 등)을 살펴보고, 우렁이 농법으

로 농사짓는 논에서 우렁이들을 관찰하였으며, 섭다리(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옛날방식의 다리)를 건너 마을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잔디광장(고론공원)에 도착했다.

잔디광장


그네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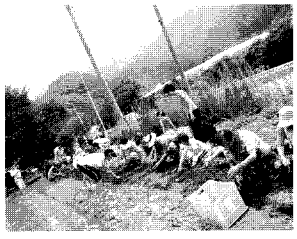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잔디광장에서 전통그네를 타보기도 하고, 넘어져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다칠 염려 없이 뛰어노는 모습에 흡족하며, 잔디광장 인근의 황토방을 둘러보고, 텃밭들을 여유로운 시간을 삼십분 가량 가질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기다리던 물놀이가 있었다. 흑천에서 물장난을 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엄마와 아빠, 아이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물을 튀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한 켠에 기다리고 있던 대나무 뗏목을 가족별로 타는 시간도 있었다. 가족별로 줄을 잡고 뗏목으로 강을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뗏목을 탄 가족에게 물을 튀기며 뗏목놀이의 재미를 더해줬다.



시원한 물놀이 뒤에는 감자캐기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에 푹 젖은 옷을 대충 말리고 트랙터 마차를 타고 감자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검은 비닐이 젖혀진 감자밭에 줄지어 앉아서 호미를 들고 감자 캐는 방법의 설명을 듣고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호미로 땅을 콕 콕 찌르지 말고 이렇게 하는거야...' 라는 설명을 들으며, 엄마 아빠와 함께 감자를 캐던 아이들은 감자가 나올 때마다 즐거워했고, 어느새 감자는 노란 바구니에 수북하게 쌓였다. 감자밭에는 검정 비닐 멀칭된 고랑들이 여럿 있었는데, 비닐 멀칭 걷을 일손이 부족해 아직 걷지 못했다는 마을 안내자의 말씀에 몇 몇 분이 도와주자는 의견을 내 감자밭 일부의 비닐 멀칭을 걷어내었다.

트렉터 마차

감자캐기 설명


감자캐기

수북하게 담겨있는 감자를 밭에 두고 일행은 가재잡기체험을 위해 푸른색 트럭에 올라탔다. 토종가재가 살고 있다는 계곡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다. 트럭

트럭타고 가재잡으러가기

가재잡기

감자껍질 벗기기

감자전 부치기

뒤에 촘촘히 앉아 덜컹거리는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계곡은 물놀이를 했던 흑천보다 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감자밭에서의 땀을 씻고, 손가락만 하다는 토종가재를 찾으려 저마다 돌멩이를 들춰댔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와서 가재가 숨어버렸는지, 결국 가재는 잡지 못한 채 내려왔다. 털털대는 트럭을 타고 마을로 돌아오자 좀 전에 수북하게 캐놓았던 감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흑천의 돌멩이로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감자전을 부쳐먹는 마지막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재를 잡지 못한 서운함은 잊어버리고 너도나도 감자 두 알씩을 가지고 흑천으로 내려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껍질을 벗긴 감자들은 강판을 이용해 쓱쓱 갈았고 당근, 부추 등과 함께 반죽을 해서 숯불로 달궈진 솥뚜껑에 부치기 시작했다. 집에서 후라이팬에 하는 것과 다르게 은근한 불에서 익어가는 감자전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엄마들 모두 감자전을 뒤집는 아빠의 '이제 먹어도 돼' 라는 말을 기다렸다.

감자전을 먹는 것을 마지막으로 신론리에서의 체험은 끝이 났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오른 주말농장 식구들은 4계절 내내 각종 체험이 있다는 신론리로 또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누며 서울로 돌아왔다.